

여고생 여름 교복 블라우스의 착용감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구본정* · 류신아[†] · 박길순
(주)이튼클럽*,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Research on the Wearing Sensations and Satisfaction of High School Girls Uniforms' Summer Blouses

Bon-Joung Koo*, Sin-A Ryu[†] and Kil-Soon Park

ETON CLUB*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9. 7. 8. 접수일 : 2009. 8. 10. 수정완료일 : 2009. 10. 7. 게재확정일)

Abstract

This study is to present a female high school summer blouse with high movement functionality and satisfying appearance, surveyed the students for their understanding of summer blouse. Experimental study's research method was questionnaire survey. By using questionnaires, the satisfaction and comfort of each region of the current worn summer blouse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After surveying 371 high school students in the Daejeon region on the currently worn summer blouse comfort levels, 48.4% showed dissatisfaction about the width of the sleeves and the armpits and over 93% wanted the use of elastic materials as an alternative. After investigating the summer blouses' mending state, 41% of students that mending their clothes chose the alternation of reducing the overall silhouette of the blouse in all areas. This reflects the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entality that thin body shape is the ideal.

Key words: high school girls(여고생), uniforms(교복), summer blouses(여복 블라우스), attitudes(태도), satisfaction(만족도).

I. 서 론

청소년기의 대부분은 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해당 하며, 생활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착용하게 되는 의복으로 교복의 중요성이 증대되는데, 과거 우리나라 교복의 형태는 획일적이고 개성과는 상관없는 일률적인 교복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의생활도 더불어 세분화되고 그 역할 또한 중요시되고 있으며, 교복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다¹⁾.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생 시기인 청소년기는 육체적 성숙이 현저하게 눈에 띄며,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긴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기 때문에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교복을 착용하게 되며, 이는 청소년의

[†] 교신저자 E-mail : sayoo@cnu.ac.kr

1) 임주희,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4).

정서, 심리 및 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교복은 소재, 디자인, 봉제 등이 정해진 상태로 중학교 시기 3년, 고등학교 시기 3년을 통제된 조건하에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감 및 착용감이 매우 중요하다²⁾.

청소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기능적이고 미적인 교복 제작을 위해서는 착용자의 체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인체의 동작 특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원형 설계와 그들의 미적 기준에 적합한 디자인이 접목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교복이 기성복으로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장점과 각 개인의 체형에 맞는 과거 맞춤형의 장점을 융합시킨 의복으로 발전되기를 원하고 있었다³⁾.

또한 청소년들의 미적 가치관과 욕구 및 감각추구 성향은 매우 빠른 속도로 그 다양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 또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날로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여고생의 하복 블라우스는 원가 절감을 위한 소재의 제한과 외관에 치중한 나머지 성장기 여고생의 생활 동작을 커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 교복 블라우스에 대한 디자인적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불만족과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여고생들을 중심으로 여름 교복 블라우스에 대하여 디자인과 기능적인 면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학생들의 여름 교복 블라우스를 착용하는데 있어 생활에 만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교복 관련 업체에 시판 교복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자 조금 더 발전된 여름 교복 블라우스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기는 신체의 급격한 성장과 생리적 변화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정 시기로 자아의식이 증대되며, 일생 중 다른 연령층보다 자신의 외모와 의복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므로 의복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이다⁴⁾.

여고생은 만 15세에서 17세까지에 해당하는 청소년 후기에 속하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자신의 용모나 신체 변화에 민감한 시기이다. 신체적으로는 성장 속도가 둔해지다가 16세 이후에는 수평에 가까운 완만한 성장 곡선을 나타내면서 인체 각 부위의 불균일한 성장에 따른 체형 변화가 나타나며, 신체의 굴곡 차가 현저해지고 인체 곡선이 부드러워진다. 피하지방이 현저하게 발달하고 허리둘레보다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가 크게 증가되어 여성다운 체형을 형성하게 된다⁵⁾. 이 때 남녀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며, 여자는 남자보다 1~2년 정도 빠르게 성숙, 안정되며⁶⁾, 발육 상태에 따라서 신체 형태의 개인차가 크게 나타난다⁷⁾. 성장 속도가 감소되면서 신체 비율은 성인과 거의 근접하게 되나, 성인의 체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⁸⁾.

1986년부터 교복 착용이 학교에 따라 다시 허용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적으로 91% 이상의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⁹⁾. 현재 교복 업체에서는 3,000여 종이나 되는 디자인을 20~300벌씩 만들어 1~2월 두 달간 판매하고, 유니폼인데도 매년 트렌드를 반영하며, 청소년이라는 고정 고객을 위해 학생복을 제작하여 입학 시즌을 앞두고 교복 시장이 활성화된다.

2) 이혜주, “남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 치수 맞춤새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복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4권 1호 (2006), p. 49.

3) 경향신문, “트렌드/동네마다 유행따라 다른 교복스타일,” 2006년 5월 18일.

4) 남상우, 맹정숙,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의복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권 2호 (1988), pp. 39-47.

5) 김혜경, 서추연, 권숙희, “여고생의 체형분석에 의한 인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권 1호 (1994), p. 131.

6) 노희숙, 이순원, “의복치수규격 설정을 위한 성장기 여학생의 체형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권 3호 (1997), p. 518.

7) 권숙희, “여고생의 Bodice 기본원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 8.

8) 김혜경, 서추연, 권숙희, *op. cit.*, p. 131.

9) 동아일보, “교복의 역사,” 2001년 2월 1일.

교복은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적절하도록 체격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하며 경제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동조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각자의 개성이나 현재의 유행, 상징성, 심미성, 기능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교복만으로도 청소년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나름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자 한다. 그러므로 성장기와 성장완료기의 경계점에 있는 여고생과 성장이 완료된 성인 여성의 체형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 생산업체 및 교복 제조업체에서는 제품 생산 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함으로써 중학생 및 성인 여성의 의복과 형태 및 치수에서 차별화된 의복으로 이들의 의복 맞춤새를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¹⁰⁾.

그러나 교복 제조업체의 치수 체계는 신장과 깃 가슴둘레, 허리둘레를 일률적으로 증가시키고 업체마다의 독자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 치수를 설정하고 있어 동일 호칭을 비교할 때 업체마다 제품 치수가 다르기 때문에¹¹⁾ 교복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개별적인 변형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박정희의 연구¹²⁾에 의하면 종래의 교복에 대한 불만족으로 교복 변형의 경험이 있는 여고생은 82.3%, 이해경의 연구¹³⁾에서는 52.7%, 이소은의 연구¹⁴⁾에서는 64.9%로 50% 이상의 학생들이 몸에 밀착되는 형태로 교복을 변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산업업체에서 제작되고 있는 기성 교복은 표준 체형의 인체 실측치에 동작 시 필요한 여유분을 둔 사이즈를 기본으로 하여 호칭별로 구분,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각 업체에 소속된 패턴 숙련자 고유의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 즉, 교복이 기성화 됨에 따라 상반신 의복의 기능성, 적합성, 심미

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위들이 각 업체별, 생산 실무자 개인의 방법에 의해 각각 다르게 제작되고 있어 개인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의 하복 블라우스에 대한 동작기능성 및 외관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교복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통하여 여고생들의 하복 블라우스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교복에 대한 착장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선행 연구의 고찰로 도출된 설문 문항과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문항들로 기초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대전 소재 여자 고등학교 중 본 연구에서 선택한 여자 고등학교 소속 4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내용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쳤다. 김은아¹⁵⁾와 민경혜¹⁶⁾의 문항을 추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2006년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여고생 40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답을 한 경우 실험의 오류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고 총 371명의 설문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χ^2 검정과 Cronbach's α 에 의해 검증 및 결과를 산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크게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교복의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문지의 구체적인 문항 수는 총 25문항으로 <표 1>과 같다.

- 10) 김혜정,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 7-8.
- 11) 김인숙, 김덕하, “여중생 성장을 고려한 최적 교복치수 선정 -자켓과 스커트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권 2호 (2000), p. 317.
- 12) 박정희, “여고생의 교복착장 태도와 의복 행동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41.
- 13) 이해경, “교복 변형 실태와 기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여고생의 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53.
- 14) 이소은,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 이미지와 교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남녀공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84.
- 15) 김은아, “고등학교 여학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체중조절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통계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pp. 50-55.
- 16) 민경혜, 류덕환, “신축성에 따른 여고생 교복의 착용감에 관한 연구 -역학적 특성과 보온성에 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7권 5호 (2003), pp. 107-116.

〈표 1〉 설문지 문항 내용

내용	문항수
일반적인 특성	6
구입 형태	3
선택 동기	1
선호도	3
착장 브랜드의 장/단점	2
개선사항	1
변형 여부	3
만족도	4
신축성	2
합계	25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는 현재 대전 지역 여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371명(100%)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항목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학년, 체형 지각, 월평균 가족 수입, 하복 블라우스의 구입 장소, 구입 형태 및 구입 벌수 등이 포함되었으며, 일반적 특성과 구매 현황은 〈표 2〉에서와 같이 1학년 115명(31.0%), 2학년 136명(36.7%), 3학년 120명(32.3%)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로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체형 지각에서는 평균 체형으로 지각하는 경우는 43.78%로 가장 높았으며, 마른 체형 지각(13.8%)보다 비만 체형 지각(42.4%)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윤자와 이승희¹⁷⁾의 연구와 김혜정¹⁸⁾, 김점혜와 이영주¹⁹⁾ 등의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여고생은 실제 체형보다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신체 왜곡현상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복 구입 장소는 대리점(71.8%), 백화점(18.8%), 맞춤점(5.9%)의 순이었으며, 하복의 구입 형태는 맞춤복이 9.7%, 기성복이 87.6%로 선행 연구

결과보다 편중 정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에서 점차 교복의 기성복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복을 한군데서 구입하지 않고 학생 본인의 기호에

〈표 2〉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교복 구매 현황

내용	분류	빈도(%)	
학년	1학년	115(31.0)	
	2학년	136(36.7)	
	3학년	120(32.3)	
체형 지각	매우 말랐다	9(2.4)	
	말랐다	42(11.4)	
	표준이다	162(43.8)	
	살찐 편이다	141(38.1)	
	비만이다	16(4.3)	
	대리점	267(71.8)	
구입장소	백화점	70(18.8)	
	할인점	5(1.3)	
	공동구매	2(0.5)	
	맞춤점	22(5.9)	
	물려 입기	6(1.6)	
	월평균 가족수입	200만원대 미만	148(42.7)
		300만원대	113(32.6)
400만원대		41(11.8)	
500만원대		17(4.9)	
500만원대 이상		28(8.1)	
구입형태	기성복	326(87.6)	
	맞춤복	36(9.7)	
	기성복+맞춤복	8(2.2)	
	기타	2(0.5)	
구입벌수	1벌	51(13.8)	
	2벌	294(79.3)	
	3벌	17(4.6)	
	4벌	6(1.6)	
	5벌 이상	3(0.8)	

17) 남윤자, 이승희,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이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권 4호 (2001), pp. 764-772.

18) 김혜정,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24.

19) 김점혜, 이영주, “여고생 교복 재킷 착용감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신축성 재킷과 비신축성 재킷의 비교-,” *생활과학학회지* 13권 1호 (2004), p. 143.

맞추어 맞춤복과 기성복을 동시에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하복 구매 별수는 79.3%가 2벌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하복이라는 특성상 잦은 세탁으로 번갈아 입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2. 하복에 대한 만족도

설문 응답자들의 일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는 0.922로 응답자들 간에 높은 일관성이 나타났다.

하복 선택 시의 동기로는 <표 3>과 같이 가장 먼저 본인이 입었을 때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즉, 브랜드별 디자인이 좋은 것(30.2%)과 브랜드 인지도(21.4%)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50% 이상의 여고생들은 외관적인 형태와 브랜드의 이미지를 교복 선택 시에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일반적인 교복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하는 디자인 내에서 가장 자기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집단적 특성상 ‘광고 모델의 팬이기 때문에’가 3순위(14.0%)로 나타나 자신이 이상

적 또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심리적인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경향도 보였다²⁰⁾.

교복의 선택 동기는 학년 간에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체형 지각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317$). 즉, 학년이 낮아질수록 ‘디자인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커지는 반면 ‘가격이 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저학년일수록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본인의 외관을 남에게 보이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하복 브랜드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먼저 장점으로는 실루엣(28.4%), 브랜드 인지도(23.2%), 디자인(20.3%)의 순으로 나타나 외관적인 면에 치중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점으로는 교복 길이(24.5%), 옷감(18.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 관리에 민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 업체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외관에 대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블라우스의 길이가 점차 짧아졌으나, 청소년기

<표 3> 하복 선택 동기

	선택 동기							$\chi^2(p)$	
	디자인이 좋은 것	인지도가 높아서	광고모델의 팬이어서	가격이 적당한 것	친구나 부모님의 조언	옷감이 좋은 것	기타		
	N(%)	N(%)	N(%)	N(%)	N(%)	N(%)	N(%)		
전체	110(30.2)	78(21.4)	51(14.0)	44(12.1)	38(10.4)	27(7.4)	16(4.4)		
학년	1학년	41(36.3)	17(15.0)	20(17.7)	7(6.2)	13(11.5)	8(7.1)	7(6.2)	26.473 (0.009 **)
	2학년	42(31.3)	36(26.9)	20(14.9)	13(9.7)	13(9.7)	6(4.5)	4(3.0)	
	3학년	27(23.1)	25(21.4)	11(9.4)	24(20.5)	12(10.3)	13(11.1)	5(4.3)	
체형	매우 말랐다	4(44.4)	-	1(11.1)	2(22.2)	1(11.1)	-	1(11.1)	26.741 (0.317)
	말랐다	13(31.0)	13(31.0)	4(9.5)	5(11.9)	4(9.5)	2(4.8)	1(2.4)	
	표준이다	54(34.0)	32(20.1)	22(13.8)	13(8.2)	19(11.9)	13(8.2)	6(3.8)	
	살찐 편이다	38(27.7)	29(21.2)	22(16.1)	18(13.1)	11(8.0)	12(8.8)	7(5.1)	
	비만이다	1(6.3)	4(25.0)	2(12.5)	6(37.5)	2(12.5)	-	1(6.3)	

* $p < 0.05$, ** $p < 0.01$, *** $p < 0.001$.

20) 김재숙, 이미숙,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권 5호 (2001), p. 958.

〈표 4〉 착용 브랜드의 장·단점

분류	장·단점	장점	단점
		빈도(%)	빈도(%)
브랜드 인지도		86(23.2)	28(7.6)
색상		21(5.7)	35(9.5)
실루엣		105(28.4)	50(13.6)
옷감		25(6.8)	67(18.2)
교복 길이		29(7.8)	90(24.5)
디자인		75(20.3)	30(8.2)
기타		29(7.8)	68(18.5)
전체		370(100.0)	368(100.0)

의 각 개인별 체형이나 외모 관리에 대한 기준 및 감성의 다양화로 교복 길이와 옷감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하복 브랜드가 주변에서도 선호하는 경향은 〈표 5〉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착용하고 있는 브랜드와 선호하는 브랜드가 서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p=0.000$).

A사의 교복을 착용한 여고생의 경우, 56.8%가 A사의 교복을 선호하며, B사의 교복을 착용한 여고생은 54.9%가 B사를, C사의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여고생은 46.5%가 C사의 교복을 선호하였다. 즉, 현재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A, B, C 3사의 브랜드에서 자신의 교복이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다고 인지하였다. 이렇게 일치도가 높은

것은 2차 구입 시 동일 브랜드가 2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권숙희와 김혜정²¹⁾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3. 현재 착용하고 있는 하복 블라우스에 대한 만족도

〈표 6〉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하복 블라우스의 동작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전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재의 신축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반 이상(75.3%)이 보통이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학년($p=0.000$) 및 체형($p=0.00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저학년일수록 신축성 소재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년 교복 업체 간의 경쟁에 의해 블라우스 소재 및 패턴이 종합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위에 대하여 하복 블라우스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9명 48.4%의 여고생들이 학년이나 체형에 상관없이 모두가 체표면의 변화량이 가장 큰 부위인 소매통 및 겨드랑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어깨부분으로 52명 14.9%로 어깨와 팔부분에 집중적으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47명 13.5%가 가슴부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고생들이 전체 활동 범위 내에서의 특히 팔이나 어깨 동작 등에서 하복 블라우스에서의 불만

〈표 5〉 착용 브랜드와 선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선호	착용	선호 브랜드				
		A사	B사	C사	기타	합계
		N(%)	N(%)	N(%)	N(%)	N(%)
착용 브랜드	A사	67(56.8)	16(13.6)	12(10.2)	23(19.5)	118(100)
	B사	13(11.5)	62(54.9)	13(11.5)	25(22.1)	113(100)
	C사	21(24.4)	12(14.0)	40(46.5)	13(15.1)	86(100)
	기타	11(26.8)	11(26.8)	4(9.8)	15(36.6)	41(100)
	합계	112(119.5)	101(109.3)	69(19.5)	76(93.3)	-

21) 권숙희, 김혜정,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권 4호 (2002), pp. 401-413.

<표 6> 착용 하복의 신축성에 대한 만족도

신축성		신축성					$\chi^2(p)$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N(%)	N(%)	N(%)	N(%)	N(%)	
전체		47(12.8)	82(22.3)	148(40.2)	77(20.9)	14(3.8)	134.201 (0.000)***
학년	1학년	9(7.8)	20(17.4)	48(41.7)	29(25.2)	9(7.8)	
	2학년	17(12.8)	31(23.3)	51(38.3)	29(21.8)	5(3.8)	
	3학년	21(17.5)	31(25.8)	49(40.8)	19(15.8)	-	
체형	매우 말랐다	3(33.3)	1(11.1)	1(11.1)	4(44.4)	-	33.377 (0.007)**
	매우 말랐다	3(33.3)	1(11.1)	1(11.1)	4(44.4)	-	
	말랐다	9(22.0)	11(26.8)	10(24.4)	10(24.4)	1(2.4)	
	표준이다	10(6.2)	37(23.0)	72(44.7)	34(21.1)	8(5.0)	
	살찐 편이다	19(13.6)	31(22.1)	57(40.7)	29(20.7)	4(2.9)	
	비만이다	6(37.5)	2(12.5)	7(43.8)	-	1(6.3)	

* $p < 0.05$, ** $p < 0.01$, *** $p < 0.001$.

<표 7> 하복 블라우스의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위

		신축필요부위								$\chi^2(p)$
		소매통 및 겨드랑이 부분	어깨부분	가슴부분	등부분	허리부분	배부분	블라우스 길이	목부분	
		N(%)	N(%)	N(%)	N(%)	N(%)	N(%)	N(%)	N(%)	
전체		169(48.4)	52(14.9)	47(13.5)	31(8.9)	23(6.6)	20(5.7)	6(1.7)	1(0.3)	15.733 (0.330)
학년	1학년	51(45.9)	15(13.5)	15(13.5)	14(12.6)	7(6.3)	7(6.3)	1(0.9)	1(0.9)	
	2학년	65(51.6)	16(12.7)	14(11.1)	11(8.7)	7(5.6)	8(6.3)	5(4.0)	-	
	3학년	53(47.3)	21(18.8)	18(16.1)	6(5.4)	9(8.0)	5(4.5)	-	-	
체형	매우 말랐다	4(44.4)	3(33.3)	1(11.1)	1(11.1)	-	-	-	-	28.670 (0.429)
	말랐다	18(46.2)	8(20.5)	4(10.3)	4(10.3)	3(7.7)	1(2.6)	-	1(2.6)	
	표준이다	71(46.1)	23(14.9)	19(12.3)	14(9.1)	11(7.1)	12(7.8)	4(2.6)	-	
	살찐 편이다	70(53.4)	17(13.0)	21(16.0)	7(5.3)	7(5.3)	7(5.3)	2(1.5)	-	
	비만이다	6(40.0)	1(6.7)	2(13.3)	4(26.7)	2(13.3)	-	-	-	

* $p < 0.05$, ** $p < 0.01$, *** $p < 0.001$.

족함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동작에 대한 불만족함을 조사하였다.

<표 8>에서와 같이 하복 블라우스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동작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72명의 74%가 보통 이하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에 따라 유의

적인 차이를 보여($p=0.004$) 학년이 낮아질수록 불만족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하복 블라우스에 동작으로 하는데 있어 불만족함이 더 많았고, 저학년일수록 하복 블라우스에 대한 개선으로 동작을 하는데 있어 불만족스러움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신축성에 대한 만족도와 동일하게 매년 교

〈표 8〉 동작에 대한 만족도

동작성		동작성					$\chi^2(p)$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분류		N(%)	N(%)	N(%)	N(%)	N(%)	
전체		37(10.1)	100(27.2)	135(36.7)	79(21.5)	17(4.6)	
학년	1학년	8(7.0)	21(18.3)	42(36.5)	36(31.3)	8(7.0)	22.538 (0.004**)
	2학년	10(7.5)	39(29.3)	52(39.1)	26(19.5)	6(4.5)	
	3학년	19(15.8)	40(33.3)	41(34.2)	17(14.2)	3(2.5)	
체형	매우 말랐다	-	1(11.1)	4(44.4)	3(33.3)	1(11.1)	21.662 (0.154)
	말랐다	3(7.3)	12(29.3)	13(31.7)	12(29.3)	1(2.4)	
	표준이다	13(8.1)	44(27.3)	61(37.9)	34(21.1)	9(5.6)	
	살찐 편이다	15(10.7)	40(28.6)	50(35.7)	29(20.7)	6(4.3)	
	비만이다	6(37.5)	3(18.8)	6(37.5)	1(6.3)	-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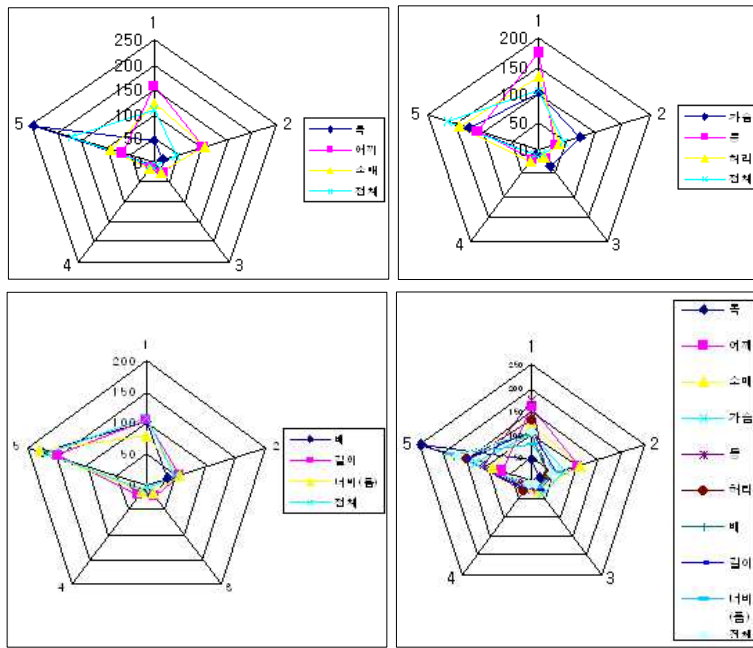
복 브랜드 간의 시장 점유 경쟁에 의한 블라우스 개선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체형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54$).

구체적으로 동작에 의한 불편 부위를 알아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여러 동작들 중 대표 동작을 추출하여 각 동작에 대한 불편 부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책상에 엎드렸을 때가 107명으로 31.5%이었고, 다음으로 팔을 뻗거나

나 움직일 때가 47명 13.3%로 동작시 불편한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신체 부위별로 자세히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책상에 엎드렸을 때 가장 불편한 신체 부위는 등 174명(49.3%), 어깨 157명(43.3%), 허리 130명(37.1%), 소매 120명(33.9%) 순이었으며, 다른 부위들도 대부분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팔을 뻗거나 움직일 때는 소매 104명(29.4%), 어깨 102명(28.1%), 가슴 74명(21.2%) 순으로 나타났다. 책상에 엎드리

〈표 9〉 각 동작에 따른 불편 부위

동작	각 동작별 불편 부위				
	책상에 엎드렸을 때	팔을 뻗거나 움직일 때	가방 메거나 벗을 때	청소할 때	불편할 때 없음
부위	N(%)	N(%)	N(%)	N(%)	N(%)
목	45(13.3)	17(5.0)	23(6.8)	8(2.4)	246(72.6)
어깨	157(43.3)	102(28.1)	25(6.9)	13(3.6)	66(18.2)
소매	120(33.9)	104(29.4)	24(6.8)	17(4.8)	89(25.1)
가슴	103(29.5)	74(21.2)	34(9.7)	12(3.4)	126(36.1)
등	174(49.3)	30(8.5)	17(4.8)	21(5.9)	110(31.2)
허리	130(37.1)	36(10.3)	13(3.7)	27(7.7)	144(41.1)
배	103(29.7)	38(11.0)	19(5.5)	13(3.7)	174(50.1)
다리	104(29.4)	56(15.8)	23(6.5)	22(6.2)	149(42.1)
너비(폭)	78(22.7)	56(16.3)	17(5.0)	13(3.8)	179(52.2)
전체	107(31.5)	47(13.8)	9(2.6)	10(2.9)	167(49.1)



1: 책상에 앉드렸을 때, 2: 팔을 뻗거나 움직일 때, 3: 가방을 떼거나 벗을 때, 4: 청소할 때, 5: 불편한 부위 없음

<그림 1> 각 동작별 전체에 대한 불편 부위.

거나 팔을 뻗는 동작에서 어깨 259명 71.4%, 소매 224명 63.3%, 등 204명 57.3% 부분의 순으로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등 부위의 경우, 책상에 앉드리는 동작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불만족을 나타내었으나, 불편한 데 없다는 것 역시 31.2%로 높게 나타나 현재의 패턴에서 불만족한 부위의 보정만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를 나타낸 도표는 <그림 1>과 같으며, 책상에 앉드린 동작을 취했을 경우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불만족을 나타내었으나, 평상시의 동작에서는 크게 무리를 주지는 않았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별 불편 부위를 살펴본 결과 어깨 및 소매 부위에 대한 불만족은 앞서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대체 반응 및 동작기능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4. 실루엣 및 여유량에 대한 만족도

하복 블라우스의 실루엣과 여유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 10, 11>에서와 같이 실루엣은 281명 76.4%가, 여유량은 273명 74.2%로 70% 이상

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루엣은 학년이 낮아질수록 보통 이상이 만족하는 경향에 대하여 유의적인 차이($p=0.02$)를 가지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루엣 및 여유량은 현재 상태로 유지하며 동작기능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리라 본다.

5. 하복 블라우스의 변형 실태

하복 블라우스의 변형 실태는 변형 및 변형 경험의 유·무와 변형 및 변형 부위, 부위별 변형 정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변형 경험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하복 블라우스의 변형 유·무는 전체의 214명 59.0%가 변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49명 41.0%가 변형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반을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많은 여고생들이 하복 블라우스를 변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년 ($p=0.1$)간에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체형 지각($p=0.002$)에 대해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즉,

〈표 10〉 하복 블라우스의 실루엣 만족도

실루엣		실루엣					$\chi^2(p)$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분류		N(%)	N(%)	N(%)	N(%)	N(%)	
전체		30(8.2)	57(15.5)	162(44.0)	100(27.2)	19(5.2)	18.073 (0.021*)
학년	1학년	5(4.3)	21(18.3)	44(38.3)	37(32.2)	8(7.0)	
	2학년	10(7.5)	21(15.8)	53(39.8)	41(30.8)	8(6.0)	
	3학년	15(12.5)	15(12.5)	65(54.2)	22(18.3)	3(2.5)	
체형	매우 말랐다	2(22.2)	1(11.1)	3(33.3)	3(33.3)	-	20.965 (0.180)
	말랐다	4(9.8)	7(17.1)	16(39.0)	13(31.7)	1(2.4)	
	표준이다	10(6.2)	20(12.4)	69(42.9)	48(29.8)	14(8.7)	
	살찐 편이다	12(8.6)	24(17.1)	65(46.4)	36(25.7)	3(2.1)	
	비만이다	2(12.5)	5(31.3)	8(50.0)	-	1(6.3)	

* $p<0.05$, ** $p<0.01$, *** $p<0.001$.

〈표 11〉 하복 블라우스의 여유량 만족도

여유량		여유량					$\chi^2(p)$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분류		N(%)	N(%)	N(%)	N(%)	N(%)	
전체		37(10.1)	58(15.8)	186(50.5)	79(21.5)	8(2.2)	5.235 (0.732)
학년	1학년	6(5.2)	19(16.5)	63(54.8)	24(20.9)	3(2.6)	
	2학년	17(12.8)	21(15.8)	62(46.6)	30(22.6)	3(2.3)	
	3학년	14(11.7)	18(15.0)	61(50.8)	25(20.8)	2(1.7)	
체형	매우 말랐다	1(11.1)	-	6(66.7)	2(22.2)	-	18.899 (0.274)
	말랐다	6(14.6)	4(9.8)	20(48.8)	11(26.8)	-	
	표준이다	10(6.2)	25(15.5)	84(52.2)	36(22.4)	6(3.7)	
	살찐 편이다	18(12.9)	27(19.3)	63(45.0)	30(21.4)	2(1.4)	
	비만이다	2(12.5)	2(12.5)	12(75.0)	-	-	

* $p<0.05$, ** $p<0.01$, *** $p<0.001$.

체형 시각에 따라 〈표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작성에 대하여 불만족을 보인 것과 일치하며, 이에 따라 하복 블라우스의 변형, 만족 및 불만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후속 연구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부위를 개선하여 소재적인 측면이나 패턴 수정 등으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복 블라우스의 변형 유·무는 선행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동복 재킷의 변형 여부를 조사하였을 때 보았던 것과 달리 동작 시 불편함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변형 정도가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하복 블라우스의 특성상 2벌의 구입과 패턴 제작의 차이로 보인다.

다음으로 하복 블라우스의 변형 부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하복 블라우스를 변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에서 변형 정도를 세부적으로

〈표 12〉 하복 블라우스의 변형 경험 유·무

변형 유무		변형 유무		p
		변형함	변형 안함	
분류		빈도(%)	빈도(%)	
	전체		149(41.0)	214(59.0)
학년	1학년	44(38.6)	70(61.4)	0.1
	2학년	46(35.7)	83(64.3)	
	3학년	59(49.2)	61(50.8)	
체형 지각	매우 말랐다	1(11.1)	8(88.9)	0.002**
	말랐다	9(22.0)	32(78.0)	
	표준이다	67(42.1)	92(78.0)	
	살찐 편이다	64(46.7)	73(53.3)	
	비만이다	8(50.0)	8(50.0)	

* $p < 0.05$, ** $p < 0.01$, *** $p < 0.001$.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와 같이 블라우스의 모든 부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변형 부위는 불만족에 의한 개선사항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치수를 줄이는 변형이었다. 현재 여고생들의 하복 변형 경향을 살펴보면 블라우스의 품, 너비, 들레 및 길이 등 모든 부위를 줄여 전체적으로 짧고 타이트하게 입기 위해 교복 치수를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

〈표 13〉 하복 블라우스의 부위별 변형 정도

변형 정도	크게		χ^2	p
	빈도(%)	빈도(%)		
목	7(35.0)	13(65.0)	12.715	0.002**
어깨	8(15.7)	43(84.3)	38.910	0.000***
소매	10(19.6)	41(80.4)	36.049	0.000***
가슴	21(40.4)	31(59.6)	34.356	0.000***
등	13(28.3)	33(71.7)	28.434	0.000***
허리	13(15.1)	73(84.9)	78.148	0.000***
길이	9(10.2)	79(89.8)	87.995	0.000***
너비(품)	18(19.8)	73(80.2)	90.174	0.000***

* $p < 0.05$, ** $p < 0.01$, *** $p < 0.001$.

타났다. 이는 여자 고등학생에 대한 박영애²²⁾의 교복 전체의 실루엣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인체선이 부각되는 실루엣을 선호한다는 결과와 백승희²³⁾의 교복 형태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짧고 허리가 들어간 실루엣을 선호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즉, 10대 청소년들은 매우 다른 체형을 여자의 이상적인 신체 이미지로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신체적인 매력에서 날씬하고 하체가 길어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이는 현대의 사회·문화적인 영향 때문²⁴⁾이라는 선행 연구를 입증하면서 불편하더라도 날씬해 보이기 위해 교복을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전시내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법을 이용하여 현재 착용하고 있는 하복 블라우스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여고생들이 원하는 하복 블라우스의 여유량, 디자인, 소재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71명의 대전 지역 여고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착용하고 있는 하복 블라우스의 안락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동작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전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재의 신축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절반 이상 277명(75.3%)이 보통이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작별 하복 블라우스의 불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개선의 한 방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재에서 신축성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349명으로 93.1%가 신축성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도 24명으로 6.4%가 응답하였다.

신축성이 필요한 부위는 169명 48.4%의 여고생들이 학년이나 체형에 상관없이 모두가 체표면의 변화량이 가장 큰 부위인 소매통 및 겨드랑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

22) 박영애,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여학생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4-34.

23) 백승희, “CAD를 이용한 교복 디자인 개발 경로 연구” (인천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45.

24) 김재숙, 이미숙, op. cit., p. 964.

으로 어깨부분으로 52명 14.9%로 어깨와 팔부분에 집중적으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슴부분도 47명 13.5%가 있었다.

동작에 의한 불편 부위를 알아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여러 동작들 중 대표 동작을 추출하여 각 동작에 대한 불편 부위를 살펴본 결과 책상에 었드렸을 때가 107명으로 31.5%이었고, 다음으로 팔을 뻗거나 움직일 때가 47명 13.3%로 동작시 불편한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신체 부위별로 자세히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책상에 었드렸을 때 가장 불편한 신체 부위는 등 174명(49.3%), 어깨 157명(43.3%), 허리 130명(37.1%), 소매 120명(33.9%) 순이었으며, 다른 부위들도 대부분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팔을 뻗거나 움직일 때는 소매 104명(29.4%), 어깨 102명(28.1%), 가슴 74명(21.2%) 순으로 나타났다. 책상에 었드리거나 팔을 뻗는 동작에서 어깨 259명 71.4%, 소매 224명 63.3%, 등 204명 57.3% 부분의 순으로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하복 블라우스의 변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변형 경험의 정도는 41.0%로 교복을 변형하는 여고생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변형을 했을 경우 하복 블라우스의 모든 부위에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변형하고 치수를 줄이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체형 지각 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살찐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고생일수록 실루엣 변형과 치수 줄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마른 체형이 이상적인 체형이라고 인지하는 여고생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로 신축성 소재를 사용한 패턴 수정이 이루어져 보다 편안한 하복 블라우스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트랜드/동네마다 유행 따라 다른 교복스타일.” 2006.5.18
- 권숙희, 김혜정 (2002).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권 4호.
- 김은아 (2005). “고등학교 여학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체중조절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의학통계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 김덕하 (2000). “여중생 성장을 고려한 최적 교복치수 선정 -자켓과 스커트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권 2호.
- 김재숙, 이미숙 (2001).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권 5호.
- 김점혜, 이영주 (2004). “여고생 교복 재킷 착용감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신축성 재킷과 비신축성 재킷의 비교-.” *생활과학회지* 13권 1호.
- 김혜정 (2001).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과 치수만족도 및 교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윤자, 이승희 (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이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권 4호.
- 노희숙, 이순원 (1997). “의복치수규격 설정을 위한 성장기 여학생의 체형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권 3호.
- 동아일보. “교복의 역사.” 2001.2.1
- 민경혜, 류덕환 (2003). “신축성에 따른 여고생 교복의 착용감에 관한 연구 -역학적 특성과 보온성에 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27권 5호.
- 박영애 (1998).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여학생복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 (1998). “여고생의 교복착장 태도와 의복 행동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희 (2000). “CAD를 이용한 교복 디자인 개발 경로 연구.” 인천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은 (2001).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 이미지와 교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남녀공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2000). “교복 변형 실태와 기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여고생의 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주 (2006). “남자 중·고등학생의 교복 치수 맞춤새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복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4권 1호.
- 임주희 (2004).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